

# “쉽없는 의심으로 인간탐구”

## 신문박의 示碑

원로 사학자 민영규 翁

“선어록에 ‘문정(問程)을 쉬지 않는다 불과문정(不罷問程)’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필수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늘상처럼 쉬임없이 오로지 학문(學問)에 전심하시는 선생의 자세는 정녕 구도자의 그것입니다.”

원로 사학자 서여(西餘) 민영규(閔泳圭·82, 연세대 명예교수) 翁의 제자 조흥은 교수(한양대)가 스승의 쉽없는 학문 역정을 예찬한 말이다.

중국의 유교학인 양명학을 이은 우리나라 강화학파의 학문체제인 강화학(江華學)의 제창자로서, 또한 중국 정종종(淨宗宗)을 완성한 신라 무상(無相: 680~756)대사 중심의 선종사를 새롭게 규명한 사학자로 유명한 민옹은 학문을 ‘인간 발견의 역사’로 규정한다.

그의 학문의 두 축인 불교사학과 강화학도 ‘인간’에 대한 탐구’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 자신이 제창하고 기반을 다진 강화학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부부카르트의 <르네상스 연구>, 비슈레의 <불란서 혁명사>가 ‘인간 발견의 역사’를 말한 바와 같이 모든 학문의 과정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

“학문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해. 선생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제자에게 전수해도 저절로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야. 스스로 알고 있고 깨우쳐야 해. 스스로 의문을 발할 때 학문에 가까이 잡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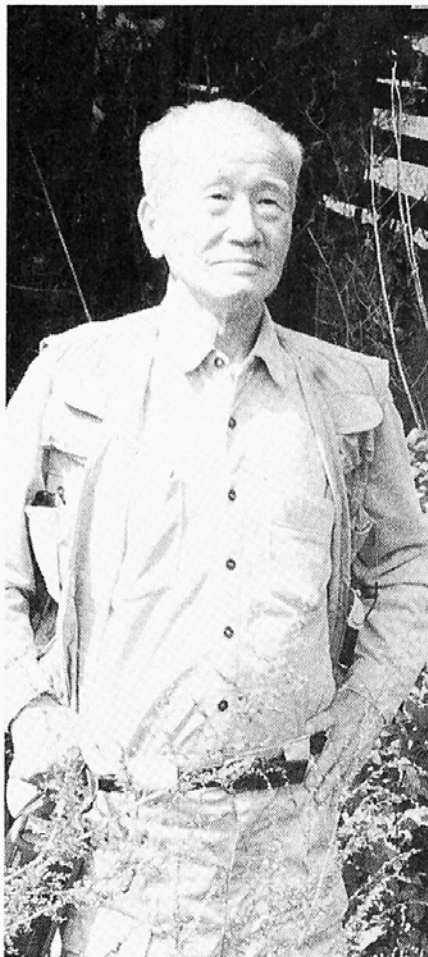
‘이 뒷’ 화두참구처럼 그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학문적인 의문을 화두 삼아 80명생 ‘물고 또 물’

“학문은 의심으로부터 시작  
저절로 자기것이 되는게  
아니고 알려고 하고  
깨우쳐야 합니다”

선생이 로망불량이었다는 말은 더욱 이채롭다.

“공부하기 바빠서 저술을 못해, 쓰기 전에 읽고 싶은 책이 더 많거든. 그래서 지나가나 책만 붙들고 있지.” 그의 독서열을 짐작케 하는 말이다. 82세인 현재도 앞으로 쓰고자 하는 5백여개의 논문주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연구열이 높다. 미해결의 과제가 많기에 책을 놓을 수 없다고 한다.

민옹은 젊은 시절엔 불교 책만 읽었다. 1941년 일본의 불교종합대학인 다이쇼(大正)대학 사학과에서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의 불교 책을 섭렵했다. 다이쇼대학에서는 연구실 조교로 일하면서 우이 하쿠슈(宇井伯壽) 교수 등 당대의 석학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6살때 독(獨)선생의 회초리를 맞으며 한학을 하던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보통학교때까지 한학을 익혀 한문에 통달한 것



김재경 기자

## ‘유마경’ 평생독송 사상적 기반...江華學 제창 82세 불구 써야할 논문 5백여편 주제 설정

끊임없는 학문 연찬(研鑽)을 계속해 왔다. 학문을 평생의 수행방편으로 삼아 새벽에 눈뜨고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한가한 시간에는 실타처럼 쪼아 온 의문을 풀어나는 저술작업을 계속해 왔다. 이렇게 내어 놓은 저서가 <사천강단> <강화학 최후의 광경> 등 독보적인 명문(名文)들이 가득한 10여권의 방대한 저서다.

독창적인 학술서이면서도 전혀 딱딱하지 않고 재미가 있으며, 그러면서 가볍지 않은 고아(高雅)한 한문투의 문체로 문학적인 품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저술들은 ‘학술논문의 새 전형을 보인 유려한 문체’로 명성이 높다. 그의 저서는 ‘제대로 알면 쉽게 쓴다’는 것. 완전한 내용과 약이 되지 않으면 글을 명료하게 쓸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글은 동·서양과 고·현대를 넘나드는 방대한 독서량과 깊은 사색에서 물어나는 맛스런 향 내용과 진솔한 인간미, 지성미가 넘쳐난다.

그의 깊이가 보이지 않는 해박한 지식은 ‘박치는 대로 읽는다’는 그의 엄청난 독서량에서 우러나온다. 놀랍게도 <엑스피어에 관한 연구> <르네상스 연구> 등이 강명길게 읽은 책이라 한다. 그의 문장(文章)

이 학문을 위한 무불통지(無不通知)의 무기가 된 것이다.

민옹은 ‘제발 공부 좀 해 달라’는 말을 불교계에 당부한다. 물론 이같은 애착은 그의 확고한 불교관에 기인한다. 자신의 건강을 해남 무위사와 도감사에 다녔던 어머니의 오랜 불공 덕으로 생각하는 민옹의 사상적 기반은 <유마경>이다.

<유마경>이 <육조단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민옹은 <유마경>에서 꿈틀거리는 혁신사상의 에너지가 중국 선종을 꽃피웠다고 본다. 1~2세기 중반 형성된 <유마경>을 대승불교운동의 원형으로 파악한 것이다. 평생독송하고 있는 <유마경>에 남다른 애착을 지녀서인지 그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천소장(義天續藏)>에 들어있는 <정명경집해관중소(淨名經集解關中疏)> 원본을 소장하고 있다. 이 책은 승조(僧肇)의 <주유마경(註維摩經)>에 이은 <유마경> 연구의 필독서로 인정되어져 왔다. 하지만 원본이 없어 본문조차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다. 민옹은 조만간 이 주석서를 번역하고 원문도 공개할 예정이다.

민옹은 보살을 더러운 진흙에서 솟아나는 연꽃에 비유한다. 그래서 “흙가슴은 청계천 밑으로 가야 한

다”고 말한다. 이것이 <유마경>에 나오는 ‘보살의 행어비도(行於非道: 非道는 五無間 지옥축생의 길)’ 즉, 죄악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라면 당장에 그 길로 뛰어들어 험뎠고 굶주림 속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남전(南泉)이 말한 ‘이류중행(異類中行: 선사가 수행자나 속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교화에 힘쓰는 일)’이나, 일연(一然)의 <경초선(經草禪)> 경초는 소나 말이 먹는 풀’도 같은 맥락에서 그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다.

이처럼 그의 불교사학은 ‘행어비도’ ‘이류중행’ ‘경초선’으로 이어지는 보살도의 공구(窮究)와 홍포(弘布)라는 일관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유마경사에 빠져 유마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티를 내지 않는다. 이점이 그가 불교학계 보다는 일반 사회에 더 알려지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결국 그는 누구 보다도 불교 밖에서 불교를 알리는 전법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꽃꽂이 화가로서 외길을 걸어 온 그에게는 달통(達通)한 대선비의 품모가 흘러 넘친다. “깨달아 혼자 알고 있어서는 그것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민옹은 학문상의 새로운 인식이나 역사적 진실을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과 글을 통해 전할 것이다.

### 좌선과 참선 어떻게 다르지요

**문** 참선과 좌선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공경에 빠질수 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요.  
(정외진·경기 광명시 하안동)

**답** 참선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일상 생활 중에 배고르면 밥먹고 졸리면 잠지는데 참선의 도리가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참나로 나뉘는 말을 아실겁니다. 세간의 일체 만물은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참나참나에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를 포집어 딱히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 때로는 무상하다 말하고 때로는 공(空)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엄연히 살아있는 것은 살아 있고 순간순간의 경계에 따라 나름대로 숨쉬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가운데 도대체 누가 하는 것이냐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비추어 보는데 관반이고 참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선이란 행주좌와 중에 늘 하는 것이지 자리를 고 앉아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선엔 좌선도 있고 행선도 있고 와선도

그러나 무상하다는 것도 무상이라고 딱 고정되게 생각하면 그것 또한 망정이 됩니다. 무상이라 한 것은 사람들이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 주려한 가르침이지 무상이라는 또하나의 상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령 생사가 없다고 말할 때는 나고 죽는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고 열반을 말할 때는 열반이란 경계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체법에 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해서 ‘아하! 모든 것은 허무로구나!’ 한다면 그것은 또하나의 경계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걸 공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제법무아’라는 가르침은 집착할 대상이 없고 나도 없으니 다 놓으라는 가르침이지 있다는 집착대상이 없다는 집착으로 바뀌어지기 하려는게 아닙니다.

### 공덕이 적으면 못깨칩니까

**문** 사람의 몸을 받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또한 어렵다고 했습니다. 생전에 법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지극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을 들고도 깨우치지 못하는 걸 생각하면 아직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원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공경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미음선원 대행성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있겠지요.

흔히들 자리를 고 앉아 화두를 보아야만, 그걸 좌선이라 합니다만, 그렇게해야 진짜 참선하는 맛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 세상에 내 육신 끌고나와 각자 살아가는 도리가 그대로 화두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렇듯 오묘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 누가 하는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에 관해서도 의문나는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걸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면 그게 바로 화두참선일테고 그런 화두참선일랑 일거수일투족에서 어느 장소 어느 때든 가능한 것이지 자리잡고 앉아서만 가능하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지구는 쉬지않고 돌아가며 내 살림살이 또한 참나로 나뉘는데 알아야만 참선이 된다면 지구가 그때만 돌고 내 몸통이 그때만 움직이던가요? 앉았다 일어선다면 이 도리도 멈추고 마는가요?

참선이다 좌선이다 따로 형식이 있고 격식이 있는게 아니라 생활이 곧 참선이고 행주좌와와 그대로 참선인줄 아셔야 합니다.

또 공부하는 중에 공경에 빠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역대조사들도 다 그 점을 말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들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또다른 망점을 경계하신 것이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재물은 무상하고 재물은 무아라 합니다. 어느 것도 고정된 것이 없이 참나로 나뉘니 무상이요 딱 집어서 나라고 할 게 없으니 무아입니다.

제 인연이랄까, 공덕이 그런 계기를 만날 단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과연 그런 것이지요?

(장문형·서울 서대문 연희동)

**답**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의 도리를 깨우치기까지는 누구라도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뜻이니까요.

그런데 한 생 몸을 받아 태어나서도 그걸 모르고 육신의 쾌락이나 좇고 욕심이나 채우면서 살아가면 언제가는 다시 기회를 잡아 이 공부를 해야 하겠지요. 그때까지 몇 생을 더 거듭해야 할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아예 예까지 올라와 기회를 잡았는데 판 생각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그러다가 다시 굴러 떨어져서 악도를 해마다 또 외아한 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도리를 알면 어느대로 행하고 모르면 모르느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해서 씨를 뿌리고 다시 과보를 받고 그 과보가 다시 씨앗이 되서 또 과보를 받고...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간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제가는 도리를 알게되는 때가 있겠지요.

공생에 몸 받고 태어나서 불법을 만난 것만 해도 말씀하신대로 인연이 지중하고 그럴 만한 과보를 받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좋은 인연을 다시 씨앗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 진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과보가 어느 때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는 신경쓰지 마시구요.

## 삼선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삼선승가대학에서는 1997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 다 음 -

- ▶ 모집학과 : 사미니과 및 편입생
- ▶ 모집인원 : 사미니과 00명  
편입생 각학년 0명  
(타 승가대학 휴학기간 2년 경과한 자)
- ▶ 전형일시 : 1997년 1월 31일 오전 10시
- ▶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승려 재적증명서  
은사스님 추천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승려증 및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본  
증명사진 3매  
본인 도장
- ▶ 준 비 물 : 오조가사 장삼, 필기도구

.....

## 삼 선 승 가 대 학 학 장 지 광 강 주 묘 순

연락처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3가 255번지  
전 화 : 02) 923-0582, 922-9652

##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를 사용해보세요!

■ 두통·생리 (송파구 이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어느분을 통해서 항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졌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탄력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감상선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